

Sports & Entertainment & Culture  
**스포츠·연예·문화**

- 영화
- 음악
- 출판
- 미디어
- 공연·전시
- 미술
- 연예
- 전체기사

아시아투데이 홈 > 문화·연예

입력 [2009-02-01 11:37]

## 미술시장 침체? 신설 갤러리는 NO~! 디갤러리 등 잇따라 오픈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2월6일 개관하는 디갤러리 서울의 외관.

불황의 골이 깊어져 미술시장에 먹구름이 겹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설 갤러리들이 문을 열고 있다.

독일의 대형 화랑인 디갤러리는 강남구 청담동에 한국 지점적인 디갤러리 서울(02-3447-0049)을 내달 6일 개관한다.

197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디갤러리는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등 모두 4곳에서 화랑을 운영 중이며 이번이 다섯번째 갤러리다.

주로 피카소, 샤갈, 모딜리아니, 뒤뷔페 등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전위 예술의 한 종류인 코브라(CoBrA) 그룹을 비롯해 초현실주의 그림들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젊고 신선한 실험 작가도 꾸준히 발굴해내고 있다.

디갤러리의 피터 펨퍼트 대표는 "2007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디갤러리 서울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담동 화랑가에 자리 잡은 디갤러리 서울은 개관을 기념해 게르하르트 리히터, 게오르크 바젤리츠, 베르너 뷔트너, A.R. 펑크 등 독일 현대미술 거장들의 회화 및 조각 작품 30여점을 모아 '독일조형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를 4월3일까지 열 예정이다.

디갤러리 서울의 성지는 대표는 "미술 시장의 경기가 반드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려울 때 문을 열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트스페이스 스폰(02-394-3694)은 최근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주변에서 문을 열고 찰스장, 홍세연, 낸시랭, 고선경, 윤기원 등 34명의 작품으로 개관 기념전을 열고 있다.

Stocks&Funds +MORE

- 시황·전망** 한달만에 1,200 회복
- 미국증시** 부양책·금융구제 기대로 반등...
- 이슈분석** 코스닥 소액주주들 뿔났다
- 추천종목** 증권사 추천종목

스포츠·연예 +MORE

**이민호·문채원 키폴모델 발탁 '대박예감'**  
KBS 2TV '꽃보다 남자'를 통해 '구준표 신드롬'을 일으...

- 더크로스 '내버 앤딩', '미친 사랑'...
- 손담비 주연 영화 '하이프네이션' 단...

**김연아의 목표 '첫 우승-200점 돌파'**  
2010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는 '피겨퀸' 김연...

- 남자 피겨 유망주 김민석, 목표는 14...
- AP통신, 김연아 국적 '북한'으로 오...

★ 독특한 감각의 'S' +MORE

- [Salary man] 경제한파... 그래도 고...
- [Spot-light] 삼성그룹의 차기 리...
- [Society] 의원 말 한마디에 옷 벗...
- [Second Chance] 조준래 비트풀...
- [Sex] 은밀한 성형, 내게 꼭 필요한...

게임 Sketch



연씨, 리니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 "TAAN(탄), 포트리스 아성 넘...
- NHN 한게임, 10주년 기점으로 기...
- "코스닥 상장은 터닝포인트가 아닌...
- 2008년 10대 뉴스 총정리

요건 몰랐지? +MORE

- 사랑,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
- 주사 한방에 거짓말이 '쏘~옥'...
- 거드랑이 낚새, 男 '치즈' ...

아트스페이스 스푼은 4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신생 갤러리로, 신진 작가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초동에는 지난해 12월 서정옥갤러리(02-582-6646)가 문을 열었다. 현재 두번째 기획전으로 지홍, 이운중, 김성호 작가가 참여하는 3인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는 서양화와 한국화 20점을 2월11일까지 선보인다.

또 작년 10월 인사동 대일빌딩 2층에는 대형 전시공간을 갖춘 대관 위주의 화랑인 한국미술관(02-710-1161)이 문을 열었다.

1460㎡(440여평)의 공간은 최대 12개로 분리되며 무선 마이크와 빔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를 위한 장비도 갖췄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이홍연 '월간 서예문인화' 발행인은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디갤러리 서울에서 전시중인 독일 화가 올츠의 작품.

<전혜원 기자 hwjun@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핫이슈** HOT

- 사이코 패스 테스트 해보세요
- '꽃남' 구준표, 흥분해서 욕 나왔나
- 일본 화산폭발.. '존티토' 예언 적중했나
- 김수현 쇼핑물, 모자이크 성기 노출 '충격'
- 담배피는 2살 아이.. 구경하는 아버지, 막장 중국?

아시아투데이 : 회사소개 | 인재채용 | 광고문의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약도 | 아시아에듀 | 고충처리 | 후원하기

회사명 : 아시아투데이(주)

사업자 등록번호 : 220-87-22555 / 통신판매업신고 : 2007-05911

회사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번지 인영B/D ☎Tel : (02)769-5000 ☎Fax : (02) 769-5110 / 대표자 : 백석기

ASIA TODAY

ASIA TODAY 회원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ASIA TODAY CO., LTD.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투데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